

라이프 싸이클

강 세 원

(세운정보시스템(주) 대표이사)

인간이 무리하지 않고 생활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면 120세까지는 살 수 있게 태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섭취하는 음식물의 부족한 영양상태, 무리한 생활습관, 거기에다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세균으로 인한 질병, 유행병 등으로 20세기 초까지는 인간의 수명이 30~40세에 불과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발달된 의학기술, 고도화된 약품의 출현 그리고 식생활의 개선에 따른 영양섭취등으로 수명이 점차 늘어나 요즈음은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72세(남자 68세, 여자 76세)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 10년후에는 한국인은 70대후반 그리고 20년후에는 80세까지 살 수 있을것 같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 첨단약품개발, 영양분의 풍부한 섭취등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는데 반하여 사회가 고도화 되고, 문명화 되고, 산업화 되면 그만큼 공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공기오염이 인간에게 미치는 호흡기

질환, 폐질환 등에 따른 수명의 단축, 고도의 공업화가 가져다 줄 물의 오염이 인간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여러가지 해독에 따른 수명의 단축, 방부제, 농약, 식품첨가제의 남용으로 우리몸에 미치는 영향, 몸에 좋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섭취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갖다줄 영양의 과대섭취가 우리몸에 미치는 영향,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는데 따른 각종 스트레스 및 점점 증가하는 심장병, 뇌질환등의 성인병, 그리고 각종 암, AIDS등의 불치병 등이 점점 길어지는 우리의 수명에 마이너스 역할을 하여 오히려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더구나 핵기술의 발달로 인류에게 많은 공헌을 한 원자력이 뜻하지 않은 사고나 폐기물의 관리 소홀로 언제인가는 지구환경 전체에 방사능오염을 일으켜 치명적인 인간수명의 단축을 초래할지 모를 일이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컴퓨터의 성능도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여 10년 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가 되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느정도로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되고, 어느분야에까지 컴퓨터가 이용될지 상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컴퓨터분야에도 여러가지 바이러스의 침입, 해커들의 침입,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꾼들의 등장, 아무리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되고 기술이 발달된다해도 나날이 고도화

되고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컴퓨터범죄가 판을 쳐 컴퓨터 이용기술이 위축되고 수명이 단축되어 Life Cycle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괜한 노파심일까?